

지역 소식통

고창 프리미엄 멜론  
싱가포르 수출길 올라

대한민국 최고 멜론으로 인정 받고 있는 고창 멜론이 싱가포르 수출길에 오른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선운산 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고창 멜론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차량선적식을 마쳤다. 이번에 수출하는 고창멜론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한화로 1개에 약 2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수출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의 성과다. 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유신종)과 선운산농협이 함께 한다.

고창군과 토성영농조합법인은 고창 멜론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원과 수출 관련 협의 △기합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수출업체 고려무역과의 등 충분한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고창 멜론은 황토에서 재배되어 품질이 좋고 시장 선호도가 높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정 본격적인 청년중심 정책

전북 고창군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젊고 역동적인 청년중심 도시를 향한 첫 발걸음을 뒀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고창군 청년기본조례'가 통과됐다. 조례는 고창군이 지역 청년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에게 창업, 문화, 교육, 일자리, 복지 등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창군은 청년거버넌스 구축, 청년네트워크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다.

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성과도 돋보이고 있다. 올해 일자리 관련 행정안전부 예산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공모해 1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예산 역시 지난해 대비 500만원이 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노을대교 4차선 확장돼야”

“한옥건축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심덕섭 고창군수, 확대간부회의서 필요성 강조

심덕섭 고창군수가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을대교 계획이 왕복 4차선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군수는 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철근 등 자재비 상승의 여파로 노을대교 건설공사가 3번이나 유찰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공사금액을 짊어질 수 없게 될 문제가 아니라면 애초에 대응적으로 4차선 확장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 동호천과 부안 변산을 잇는 노을대교는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육지부 6.18km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로도 편도 1차로(왕복 2

차로)로 좁혀졌다. 장기적인 교통 및 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비좁다.

심 군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과 노을을 상품화 하고 노을대교가 갖고 있는 잠재적 경제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4차선 확장이 절실하다”며 “인근 부안군과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4차선 계획변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간부회의에서 심 군수는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의 철저한 준비,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예도기간 동참 등을 지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전북대, 정규학과 개설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과 전북대학교가 고창캠퍼스 내 한옥건축학과를 정규학과로 개설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심덕섭 고창군수,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고창군·전북대학교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부과정 한옥건축학과 고창캠퍼스 개설·운영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정규학과) 개설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한옥건축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적극 협력 등이 담겼다.

앞서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사업단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의 한옥교육 시설을 구축해왔다. 특히 취미·교양 목공교실부터 한옥건축기초전문인력 양성인 한옥대목수 과정까지 대상별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해 오면서 지역활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옥건축학과(계약학과)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입시전형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군민의 학위취득과 지역의 인적자원 양성의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한옥건축학과 정규학과로 도약 시켜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대 고창캠퍼스에 한옥건축학과 정규학과를 개설함으로써 한옥문화의 계승 발전하는 한옥건축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고추 융복합사업단, 향토산업 본격 육성 시작

총사업비 30억원 투입  
2025년까지 추진 계획

정읍시 신태인농협은 1일 신태인농협 가공공장에서 정읍 고추 융복합사업단 현판식을 열고 정읍 고추 융복합사업단을 위한 첫발을 뒀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 임승식 도의원, 고성환·오명재·오승현·송기순 시의원, 김철수(전)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장, 김성주 신태인농협 조합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신태인농협은 지난해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향토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전북도가 각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향토 자원을



발굴해 2·3차 산업과 연계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정읍 고추 융복합사업단은 3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고추 명품화를 위해 재배 농가의 역량 강화와 고춧가루

제품 연구개발을 추진한 계획이다. 또 제품 홍보와 마케팅, 유통 다각화,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해 고추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한양대, 지역경관 활용 인구유입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집중

부안군은 지난달 31일 관계 공무원 약 20여명이 한양대학교 건축학부를 방문하고 '부안군 지역경관 활용 인구유입 전략 마스터플랜' 프로젝트 중간고사 발표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부안군은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상호연계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경관·문화·관광 등 분야별 인구유입 연계 방안 모색, △지역자원에 대한 공동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와 체결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양대 건축학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6차점 필수과목으로 편성하고 졸업과 함께 생태관광, 졸업후 소도시, 고향, 격포항, 해달마루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건축학부 학생 약 80여명이 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장답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중간고사 발표는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대상지별 각 3~4팀으로 구성된 한양대 건축학부의 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해 듣고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대상지의 여건에 따른 추진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학부생들의 자문 및 평가를 위해 참여한 건축학부 교수진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대상지별 진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내장산 생태공원 내 사진찍기 명소 조성

정읍시가 내장산 생태공원 내 사진찍기 명소를 설치해 내장산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시는 2022년 내장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억4,700만 원을 들여 내장산 생태공원에 천국의 계단과 단풍터널 시설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내장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풍터널은 울긋불긋 현란한 내장산 단풍나무 터널길을 모티브로 제작했

다. 높이 3m, 길이 18.5m로 만들어졌으며, 투명 채광판에 새겨진 단풍무늬가 햇빛에 반짝이며 자연과 어우러져 특색있는 공간을 연출한다.

특히 비와 햇빛을 피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단풍터널 내 9개의 벤치도 설치했다.

천국의 계단은 전선이나 오름의 방해 없이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을 배경 삼아 사진 찍기 좋은 명소다.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는 태양 빛이 그려내는 색깔을 담을 수 있으며, 낮 시간에는 바다보다 깊은 피란 공장을 캔버스 삼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마을기술사업단, 주거복지 향상에 '온 힘'

정읍시와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는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간 걸쳐 마을기술사업단과 함께 농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소규모 집수리 활동을 전개했다.

마을기술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재능·경험 등을 활용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고령화율이 높고 도시에 비해 주택수리 등 관련 서비스가 어려운 농촌 마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 주관 생생마을플러스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는 재능기부자 5명을 모집해 마을기술사업단을 구성했다.

총사업비 3,800만 원을 활용해 정읍면과 이평면, 태인면, 감곡면 등 24개 마을 33가구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했다.

특히 LED 등 교체를 비롯해 방충망과 장판, 변기, 천장 보수 방문 개조 등 소규모 수리를 진행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